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8-90문) : 회심(悔心 conversion)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회심의 정의

(1) 어원적 의미

- ① 헬라어(Greek) metanoia → 메타(~ 넘어에) + 노이아(마음/생각) =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
- ② 라틴어(Latin) resipiscentia → 어떤 일을 행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
⇒ 마음과 생각, 의지를 바꾸어서 지혜로운 상태가 된다는 의미

(2) 회심의 요소

- ① 옛사람을 죽이는 것 (→ mortification) ② 새 사람을 살리는 것 (→ quickening)
죽임(mortification) a. 원죄가 적절히 억제되면 자범죄를 범하지 않게 됨(롬6:7)
b.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림,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림(갈5:17)
c. 죽이는 것은 죄를 중단하는 것

살림(quickening) →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
a.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적용됨을 알게 됨
b.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됨
c.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3)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바른 회심의 정의(definition)

- ① 부패한 마음과 의지가 율법과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선한 마음과 의지로 바뀜
(→변화 transformation) ↳ through God's word ↳ by the Holy Spirit
- ② 회개의 열매를 맺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 ③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는 것 (→행동의 변화, 선행)

2.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십자가 죽으심)과 성령 안에서의 삶

(고전6:1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 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예수, 임마누엘) ⇒ 구원자 예수 : 속죄사역으로 씻기심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공로)을 의지하여 회개
- ② 성령 안에서 (→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가 신자에게 임함)
- ③ 씻음(→ 죄가 완전히 소멸), 의로움(→ 칭의 justification), 거룩함(→성화 sanctification)

(행26:20b)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 ⇒ 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는 것
② 회개에 합당한 열매 :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선행하는 것

3. 회심의 원인 ⇒ 참된 믿음에서 회심이 나온다.

- ① 참된 회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 (→동력적 원인 efficient cause)
- ② 율법과 복음(→수단적 원인) : 율법=죄를 깨닫게 함, 복음=후회하는 마음을 격려
- ③ 믿음(→내적인 원인)

4. 회심의 형식과 최고의 목적

(1) 참된 회심은 저, 정, 의의 변화로 나타남

- ① 지(知) -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 (→생각, 이성)
- ② 정(情)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마음)
- ③ 의(意) -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의지)

(2) 회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복락과 영생이라는 유익을 누리게 됨

5. 회심의 효과

“참된 회심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이다” (…예배와 선행)

6. 금생에서의 회심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회심을 해야 하는 이유?

⇒ 성도들의 겸손, 믿음과 인내와 기도를 통해 훈련받게 하며,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
⇨ 성도의 겸손, 훈련, 자랑하지 않도록

J. Calvin “회복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시고, 그 죄책(guilty)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에 이끌리는 성향을 회복시키신다. 이 회심은 평생토록 실천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종결된다” (Inst., III 3:9)

7. 신자의 회심은 불신자의 회심과 다르다.

(1) 불신자의 회심은 양심의 가책,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절망에서 나온다.

회개 이후에 잠시 후회가 있고, 죄를 멀리하는 듯 하지만 다시 죄악 속에서 헤맨다.

(2) 신자의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나온다.

회개 이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며,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8.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회개는 필수적인가?

⇒ 회심(회개) 없이는 내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의 말) 금생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회개나 보상의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얻든지 둘 중의 하나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한다.